# 현역의원 추가 합류가 관건 "혁신위 인적쇄신안 수위 촉각

#### 박주선 새정치 '현역 1호' 탈당…신당 창당 급물살 타니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22일 탈당을 결 행, 신당 흐름이 가속화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신 당 창당 선언이 이어지면서 야권 재편의 흐름이 구 체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박주선 의원의 탈당이 불 러올 파장은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특히, 호남 정 치 1번지인 광주 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3선 중 진 박주선 의원의 탈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보이고 있는 호남 민심에 미치는 영 향도 상당할 전망이다.

일단 박 의원의 탈당으로 신당 흐름은 지난 20일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을 선언한 천정배 의원과 신 민당 창당 선언을 한 박준영 전 전남지사 등 세 갈래 로 형성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 새정치민주 연합을 대체하는 중도 개혁 정당을 모토로 하고 있 다는 점에서 어느 지점에서 합쳐질 가능성이 큰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박주선 의원과 천정배 의원, 박준 영 전 전남지사는 신당 세력 간의 연대 및 협력 가능 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야권 안팎에서는 올해까 지는 여러 갈래의 신당 흐름이 있겠지만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노'라는 공통 분모로 수렴되지 않 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새정치연합에게는 생각하기도 싫은 '악몽' 이다. 호남에서 신당과의 '피 터지는' 경쟁이 불가 피한데다, 박빙의 표차로 승부가 갈리는 수도권에 서 야권 표가 갈리면서 새누리당에 참패할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신당이 국민적 기대와 희망을 담을 수 있 느냐다. 이를 위해선 새정치연합 현역 국회의원들 의 추가적인 합류 그리고 참신한 정치 신인들의 영 입이 최우선 관건으로 꼽힌다. 수권 정당으로서의 비전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친노 주류 진영에서는 "박주선 의원 탈당에 이은 추가 이탈은 없을 것"이

주류 "추가 이탈은 없을 것" 비주류 "탈당 도미노 현실화" 호남민심 "일단 지켜보자"

라며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문 대표 의 재신임이 이뤄진 상황에서 비주류 인사들이 박 주선 의원에 이어 탈당을 결행할 명분이 없다는 것

반면, 비주류 측에서는 문 대표의 재신임이 주류 의 실력 행사를 토대로 한 '셀프 재신임'이라는 점 에서 정치적 명분과 계기만 주어진다면 연쇄 탈당 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23일 발표될 혁신위의 '인적 쇄신안'이 추가 탈당 도미노를 불러올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 온다. 당 안팎에서는 특정 인사들의 '퇴진'까지도 포함할 정도로 핵폭탄급 인적쇄신안이 발표될 수 있다는 소문과 함께 '살생부'도 흘러다니고 있다.

혁신위가 인적 쇄신 대상을 구체화한다면 그 파 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재신임 정국이 가까스로 미 봉되긴 했지만 주류와 비주류의 불신이 깊다는 점 에서 '분당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 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박주선 의원의 탈당에 대해 일단은 지켜보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 합 친노 주류 세력에는 고개를 돌린 상황이지만, 그 렇다고 신당 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반응도 그리 크지 않다.

결국, 신당이 정권 창출의 비전을 제시하느냐 그 리고 새정치연합이 당내 갈등을 극복하고 총선 승 리의 단일 대오를 형성할 수 있느냐가 호남 민심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탈당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22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새정치 마지막 혁신안 "발표되면 '억'소리 날 것" 중진 용퇴·86 하방론…고강도 인적쇄신 '초긴장'

### 부정부패자 공천 원천 배제 등 담아…혁신위 오늘 발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23일 마지막 기 자회견을 하고 '제도를 넘는 혁신안'에 대해 발표 한다. 이날 발표될 혁신안은 내년 총선의 고강도 인적쇄신안이 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당 내에는 긴 장감이 흐르고 있다.

혁신위는 지금까지 제도 혁신에 초점을 맞췄지 만, 당 안팎에선 '중진 용퇴론'이나 '86(80년대 학 번, 60년대생) 하방론' 등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꾸준히 거론해 왔다.

못한 쇄신안이 담길 것"이라며 "발표가 되면 '억' 소리가 날 수 있다"고 전했다.

혁신위 공천개혁소위는 비리 혐의로 1심이나 2 심 등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공천 자 격심사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탈락시키는 안을 마 련해둔 상태다.

당 관계자의 사유로 인해 국회의원 재・보선이 발생할 경우 이 지역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안도 검토 대상이다.

혁신위원인 서울대 조국 교수는 혁신위원을 맡 기 전 자신의 트위터 글에서 ▲도덕적·법적 하자 가 있는 인사들의 예외없는 불출마 ▲호남 현역의 원 40% 이상 물갈이 ▲4선 이상 중진 용퇴 등 파격 적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혁신위 관계자는 또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지 혁신위 관계자는 22일 "그동안 제도로 다루지 난 19일 발표한 부패척결안 내용을 많이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유죄 확정시 제명 및 피선거권・ 공직임명권 영구 제한 ▲뇌물죄에 대한 30~50배 과징금 부과 ▲반부패 성적에 따른 국고지원금 연 동 ▲부패 혐의 기소시 당원권 정지 및 공직후보 심사대상 배제 ▲반부패기구로서 당 윤리심판원

의 역할 확대 등을 주장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부적절한 언행과 언동에도 반부패 원칙을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혁신 위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화합과 통합의 길을 방해하는 자, 당 정체성을 해치는 자, 막말과 해당 행위자 등이 당에 발붙일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요 구한 것과 맞닿은 것이기도 하다.

혁신위는 또 '중진 용퇴론 및 여당 강세지역 출 마론', '86 하방론'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부산 출마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

하지만, 혁신위의 마지막 발표가 자칫 당내 갈 등을 다시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인적 쇄신안이 사실상 특정인을 지목하는 방식이 될 경 우 비주류가 포함될 수 있고, 이는 비주류의 반발 을 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호남정치 1번지' 광주 동구 지역구 3선 '4번 구속 4번 무죄' 파란만장 정치역정

#### 박주선 의원은 누구?

야권의 창조적 재편을 위해 22일 새정치민주연 합 탈당을 결행한 박주선(67) 의원은 광주 동구를 지역구로 둔 법조인 출신의 3선 의원이다. 당내 대 표적인 비주류 인사로 오래전부터 탈당이 예견돼

박 의원은 올해 2·8 전당대회에서 대표직에 도전 했으나 예선에서 고배를 마셨으며 이후 친노(친노 무현) 패권주의 청산과 문재인 대표 사퇴 등을 요구 하며 친노계와 각을 세워왔다.

그는 파란만장한 인생역정을 겪었다. '4번 구속, 4번 무죄'라는 사법 사상 초유의 기록을 쓰며 '오뚝

이', '불사조'라는 별명도 붙었다.

1974년 제16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뒤 검찰 에서 서울지검 특수부장과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법 무비서관을 지냈고 2000년 16대 총선 때 보성·화순 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고흥·보성 에 옥중 출마해 낙선했으나, 2008년 18대 총선에서 는 광주 동구로 옮겨 전국 최고 득표율로 재선에 성 공했다. 또 2012년 19대 총선 때는 후보 경선과정에 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당시 민주통합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또다시 당선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